

유소연, 생애 첫 한국여자오픈 우승

최종 라운드 이븐파...합계 12언더파 276타 정상
김효주 1타 차 준우승...최혜진 3위 · 고진영 6위

유소연(30·메디힐)이 생애 처음으로 한국여자오픈 우승을 차지했다.

유소연은 21일 인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파72·6929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2번째 메이저대회 기아자동차 제34회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총상금 10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1개와 보기 1개를 묶어 이븐파 72타를 적어냈다.

유소연은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로 김효주(25·롯데)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우승상금 2억5000만원. 유소연은 2015년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이후 약 5년 만에 KLPGA투어에서 우승, 통산 10승째를 달성했다.

2008년 KLPGA투어에 데뷔한 유소연은 한국여자오픈과는 인연이 없었다. 루키 시즌 연장전 끝에 준우승에 그친 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톱10에도 들지 못했다. 2012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 진출한 유소연은 2019년까지 한국여자오픈에 출전하지 않았다.

9년 만에 출전한 한국여자오픈에서 유소연은 마침내 우승에 성공했다. 이로써 유소연은 중국 여자오픈(2009년), US여자오픈(2011년),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2014년), 일본여자오픈(2018년)에 이어 5번째 내셔널 타이틀을 획득했다.

유소연은 첫 5개 홀에서 파를 잡으며 선두 자리를 지켰다. 6번홀(파5)에서는 버디를 추가하며 1위 자리를 더욱 탄탄히 했다. 하지만 9번홀(파4)에서 유소연은 보기

에 그치면서 김효주에게 1타 차로 쫓기기 시작했다. 선두 자리를 위협 받기 시작했다. 유소연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며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17번홀(파3)에서 유소연과 김효주는 티샷을 거의 비슷한 곳에 공을 올려냈다. 유소연의 버디 퍼트는 살짝 빛나갔지만 파를 기록했다. 김효주 역시 버디 퍼트가 짧았지만 파로 막았다.

마지막 18번홀(파4)에서는 두 선수 모두 2번째샷이 벙커에 빠졌다. 벙커가 생겼지만 유소연과 김효주는 모두 벙커에서 순조롭게 탈출했다. 결국 두 선수가 나란히 파를 기록했고 승부는 유소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김효주는 마지막까지 우승 경쟁을 펼쳤지만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준우승에 머물렀다. 김효주는 한국여자오픈 2번째 우승(2014년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이달 초 롯데 컨타타 여자오픈에서 우승했던 좋은 경기력을 이어갔다.

최혜진(21·롯데)은 이날 2타를 줄이면서 9언더파 279타로 단독 3위에 올랐다. 3라운드까지 단독 2위에 올랐던 오지현(24·KB금융그룹)은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로 김세영(27·미래에셋)과 함께 공동 4위를 마크했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솔레이)은 6언더파 282타로 단독 6위, 지난 시즌 KLPGA투어 신인왕 조아연(20·볼빅)은 5언더파 283타로 공동 7위다.



프로골퍼 유소연이 21일 인천 베어즈베스트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34회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에 키스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우즈, PGA투어 재개 후 3주 연속 '쉽표'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불참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미국프로골프(PGA)투어가 재개됐으나 아직 타이거 우즈(미국)는 대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3주 연속 불참이다.

미국 골프채널 등은 20일(한국시간) 우즈가 다음 주 열리는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도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PGA투어는 지난 3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 후 코로나19로 인해 전격 중단됐다. 약 3개월이 지난 뒤 6월초 찰스 슈와브 챌린지로 투어가 재개됐다. 이번 주

RBC 헤리티지가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에는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이 열린다.

우즈는 지난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이후 공식 대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찰스 슈와브 챌린지, RBC 헤리티지에 이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에서도 우즈의 샷을 볼 수 없게 됐다.

골프채널은 우즈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 대회로 7월2일 시작되는 로켓 모기지 클래식, 7월16일 열리는 메모리얼 토너먼트를 꼽았다.

그 중에서도 우즈는 통산 5번 정상에 섰던 메모리얼 토너먼트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군, 생활체육대회 활성화 추진

강진군은 오는 26일 강진군수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28일에 제3회 강진명산 생활체육 등산대회, 30일에 강진군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동호인 대회까지 다채로운 생활체육 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제3회 강진명산 생활체육 등산대회는 강진군체육회와 강진군산악연맹, 강진군산악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로 28일 오전 8시부터 약 250여 명의 동호인들이 함께 모여 강진읍 보은산(439m), 군동면 비파산(403m), 작전면 오봉산(396m)을 등산하면서 관내·외 동호인들 간 친목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은산 등산은 강진읍 솔치에서 출발해 일봉산, 산태봉, 까치내재를 거쳐 금곡사 벚꽃광장으로 돌아올 계획이다. 비파산 등산은 독고개재, 중계소 비파산, 까치내재를 거쳐 벚꽃광장으로, 오봉산 등산은 구치재 1, 2봉, 오봉산 3, 4, 5봉, 까치내재를 거쳐 벚꽃광장으로 복귀하는 코스이다.

코로나 19 생활속 거리두기 속 26일엔 '강진군수배 게이트볼' 28일 '강진명산 생활체육등산'

또한 대회 가운데 산에서 흔적 남기지 않기 운동인 LNT(leave no trace)운동을 추진해 등산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기로 했다.

강진군은 등산대회 이외에도 지난 5월 20일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6개 군 초청 게이트볼 친선대회'에 이어 '강진군수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및 '강진군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동호인 대회' 역시 강진종합운동장 내 게이트볼 구장에서 개최한다.

대회에는 관내 17개 분회 30개 팀 240여 명이 참가하며 그동안 같고 닦은 게이트볼 실력을 뽐내면서 동호인 간 우의를 다질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대회가 개최돼 참가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및 방역복 작성 등 철저한 방역 대책 추진 속에 안전한 대회가 개최되도록 추진 중이다.

이정후의 진화 '정확도에 장타율까지...'

타율 0.378...시즌 41경기만에 한시즌 개인 최다 7홈런

키움 히어로즈의 '천재 타자' 이정후(22)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올 시즌에는 기존의 장점인 정확도에 장타력까지 늘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전 코치의 아들인 이정후는 2017년 프로 데뷔 후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다. 매년 최소 163안타 이상을 때려냈고, 지난해에는 타율 0.336 193안타 6홈런 68타점 91득점을 기록했다.

놀라운 것은 현재까지 타율 0.378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벌써 홈런 7개를 터트렸다는 점이다. 이정후는 2018~19시즌 2년 연속 6홈런에 그쳤는데 올해 41경기만에 홈런 7개를 기록했다.

이정후의 장타력은 지난해 0.456에서 올해 0.641로 폭증했다.

이정후는 "홈런을 치기 위해 스윙폼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힘을 기르고 기존 스윙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겨울에 연습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정후는 다음 달 합류 예정인 새 외국인 타자 에디슨 러셀에 대한 기대감도 나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

타냈다. 이정후는 "유명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적을 잘해서 팀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한다"고 미소 지었다.

분데스리가 레반도프스키 한 시즌 최다골 '33골'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32·폴란드)가 독일 분데스리가 외국인 선수 한 시즌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다.

레반도프스키는 21일(한국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19-20시즌 분데스리가 33라운드 프라이부르크와의 홈경기에서 2골 1도움으로 활약하며 3-1 승리를 이끌었다.

리그 33호골을 터트린 레반도프스키는 피에르 오바메양(아스날)이 지난 2016-17시즌에 작성했던 한 시즌 외국인 선수 최다 득점(31골) 기록을 새로 썼다.

참고로 독일 선수와 외국인 선수를 아우른 역대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골은 1972년 게르트 뮐러의 40골이다.

레반도프스키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30경기에서 33골을 넣었고, 컵대회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등을 포함해 41경기에서 48골을 기록 중이다. 경기 당 1골이 넘는다.